

2022년 온누리교회 표어

세상의 소금과 빛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1월 21일까지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 1월 1일~12월 31일

2022년 새해가 밝았다. 2022년 온누리교회 표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새해 온누리교회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

그 시작은 1월 21일까지 이어지는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예배당 예배,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CGNTV로 참여할 수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순별 단체채팅방을 활용해서 말씀을 또 한 번 깊이 새기고,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한 중보기도에 참여한다. 교회에서 매일 순장들에게 새벽기도회 링크, 중보기도 제목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면 순원들과 공유하고, 순장과 순원들은 순별 단체채팅방에서 새벽기도회에서 받은 은혜를 '한 줄 기도문'으로 나누면 된다.

'2022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도 시작한다. 2022 온누리 공동체 성경읽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성경읽기표를 따라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 과정이다. AI 기술을 활용해서故 하용조 목사 음성으로 제작한 우리말성경 버전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회에서 각 공동체 총무들에게 매일 성경읽기 링크(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기독교 OTT '풍당', 드

라마 바이블 '공동체 성경읽기')를 전달하면 성도들과 공유하면 된다. 그날 분량의 성경을 듣거나 읽고 순 단체채팅방에 감동받은 구절이나 짧은 은혜 나눔 혹은 "아멘" 등을 쓰면 된다. 성경읽기표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2022년 온누리교회에서는 1월 1~2일, 8~9일 선교헌금작정, 2월 14~19일 목회사관학교, 3월 1일 순장영성수련회, 4월 11~15일 고난주간 십야예배, 4월 16~17일 부활주일, 6월 22~24일 마리아행진, 8월 1~5일故 하용조 목사 11주기 추모기간, 10월 12~14일 부흥축제, 11월 2~3일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26일 임직식, 12월 12일(~2023년 1월 20일)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24~25일 성탄절 및 성탄주일, 12월 31일 송구영신예배 등이 이어진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4월 17일까지
'생명나눔의 기적'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헌혈의 집 방문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됐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도들에게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지난해 12월 25일(성탄절)부터 올해 4월 17일(부활절)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기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해서 헌혈하고, '인증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 또는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전송하면 된다. 가까운 헌혈소 위치는 한마음혈액원 홈페이지 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를 통해 기증된 혈액은 소아암 환우들을 돕는데 사용된다.



열방에 소금과 빛으로!

1월 1~2일, 8~9일 '2022 선교헌금 작정'
선교헌금작성서, 온라인작성서, 전화 참여

2022년 온누리교회 선교헌금 작정을 한다. 2022년 1월 1~2일과 8~9일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에서 '열방에 소금과 빛으로'를 주제로 선교헌금을 봉헌한다. 예배당 예배에서 나눠주는 '선교헌금작성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영상 예배 QR코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더보기란 클릭),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 전화

로 참여할 수 있다.

선교헌금작성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구헌금'이나 '봉투헌금'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개인정보, 금액, 전자서명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선교헌금 증액은 전화(02-3215-3616)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선을

을 다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60개 국가 총 56,606세대에 1십억3천3백7십7만4천9백2십6원(1,033,774,926원)에 달하는 식료품과 방역용품 등을 지원했다. 몽골,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등지에서는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고 현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등의 열매가 있었다.

국내에서도 온누리교회 선교는 활발하고 풍성했다. 코로나19로 비자발 철수한 선교사 재배치와 안식년 선교사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돕는 사역을 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비대면 여름 아웃리치로 섬긴 이주민 공동체가 부흥하는 역사도 있었다<관련기사 4면>.

2022년 온누리교회 선교는 열방에 소금과 빛이 되는데 집중한다. 선교 현장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전략적 팀(Team)사역, 현지인 사역자 양육과 사역 이양, 현지인 교회, 선교단체와의 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외에서 이주민, 난민, 탈북민들을 섬기는 사역도 확장할 예정이다.

신년특집 세상의 소금과 빛 온누리

① 하나님의 사람 ‘최도성 장로’



“크리스천 글로벌 시민을 양육하는 꿈!”

한동대학교 제7대 총장 최도성 장로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마 5:13, 14).

2022년 온누리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표어로 내걸고 힘차게 출발했다. 크리스천들이 촉매제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게 될 것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한다. 본지에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온누리 사람들, 기관, 사역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하나님의 사람 최도성 장로다. 한동대학교 제7대 총장으로 선임된 최도성 장로(OCC공동체)는 2022년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섬긴다.

최도성 장로가 이끌어갈 한동대학교의 모습이 어떠할까? 최 장로는 한동대학교의 모든 학생들을 ‘크리스천 글로벌 시민’으로 양육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꿈을 꾸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최도성 장로와의 일문일답.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풍성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온누리교회 표어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처럼 사십시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로 인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밝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소감과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인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굳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동대학교는 27년밖에 안 되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초대총장이셨던 김영길 장로님의 교육철학인 ‘공부해서 남 주자’, ‘Why not Change the World?’를 실천하는 대학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복음과 지식을 전해서 그 지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 60:1)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신임총장으로 섬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회복시키고, 둘째, 한동대학교 졸업생들이 세계로 나가고, 세계의 학생들이 한동대학교로 공부하러 오는 글로벌 대학의 비전을 새롭게 하며,

셋째, 세상이 꼭 필요로 하는 인재이자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인 ‘크리스천 글로벌 시민’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시민이란 정직하고, 성실하고, 한결같고, 남을 배려하고, 긍휼을 베풀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직하고 성실하며 남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파송된 하나님의 파수꾼일 뿐입니다. 끝까지 순종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기가 몹시 힘든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체성을 회복시킬 방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배움의 바탕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과 배움은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이건 내 것’이라고 하지 못할 곳은 단 한 뼘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학의 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움과 신앙, 거기에 개인의 삶이 통합되고 하나가 되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유능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크리스천 글로벌 시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과 삶과 배움이 통합되는 크리스천 글로벌 시민을 반드시 양육할 것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의 저서 <나를 따르라>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과 빛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소금은 짜서 맛을 내야 하고, 그 짠맛으로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빛은 밝게 비춰야 존재합니다. 비추지 않고는 빛이 아닙니다. 한동대학교의 교육은 학생들 스스로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소명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준비해서 세상에 나가는 과정입니다.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말씀에 충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한동대학교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비전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행 목표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거짓이 팽배한 사회입니다. 거짓을 이기는 힘은 정직함(integrity)에서 나옵니다. 결과 속이 일치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한동대학교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삶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배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해주는 방법을 한동대학교 학생들이 생활관에서 배우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또 항상 예배에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관을 토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사역에 동참하는 제자들입니다. 교수들이 먼저 이러한 세계관과 신앙관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학생들도 지식뿐만 아니라 소명과 정체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자신을 한동대학교로 부르셨다는 것과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 글로벌 시민을 양육하고 배출함으로써 그들이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한동대학교의 정체성을 회복시

키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세 가지 비전을 이루는 구체적인 실행 목표이자 방법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모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한동대학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누리교회가 도움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관심이 절실합니다. 후원도 필요합니다. 인재를 키우는 일은 재정이 많이 들고, 결과가 눈에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할 때 돈이 없어서 못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믿음과 비전,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면 재정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동대학교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한동대학교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 특히 믿음의 학생들이 입학 지원을 하도록 홍보해 주십시오.”

장로님이 생각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은 무엇입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질 뿐이고, 등잔이 빛을 비추지 못하면 쓸모없는 물건일 뿐입니다. 소금의 짠맛, 빛의 밝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짠맛 잃은 소금이고, 밝히지 못하는 등잔일 뿐입니다. 믿음 없는 선행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야 합니다. 분회과 목사님이 ‘믿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믿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온누리교회의 모든 사역이 소금과 빛의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하고 제한된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을 해내고 있는 CGNTV와 NGO 더멋진세상, 모든 선교사님들, 장애인 예배공동체 사랑부 교사 등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묵묵히 섬기는 모든 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스스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행동하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크리스마스는 진정한 영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세상의 영광은 더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과 탁월한 지식과 기술로 인하여 누리는 영광입니다. 만일 그것을 아무 수고 없이 누군가 누린다면 헛된 영광이요, 거짓된 영광입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스스로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의미 있는 영광이고, 누군가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영광은 그 누구에게도 좌절과 절망과 부러움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광은 오히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고, 그들에게 새 힘과 용기, 소망을 줍니다. 사람들에게서 발견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만들지 않고, 좌절과 절망을 주지 않고, 도전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깊은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을 일으키는 영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탄이 바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진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알리는 책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가 이 영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었고,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가장 친밀했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있던 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았던 그가 “예수님에게서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도대체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영광을 보았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과 살았던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성탄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저 문화일 뿐이고 분위기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본 사람에게만 성탄이 기쁨의 소식이요, 소망의 사건이며, 마땅히 경배해야 할 사건입니다.

성탄의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을 소개할 때 기적들을 통해 나타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14번이나 사용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십자가의 죽음이 곧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이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탄의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그 영광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겸손에서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섬기는 종으로 나타내는 영광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속물로 내어주시는 희생에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은 분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심에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자신을 높이는 이 세상의 영광과 달리 자신을 낮추고 낮춰서 죽기까지 낮아짐으로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모든 이들을 살리고,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는 영광의 빛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요한은 그 영광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독생자’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다섯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헬라어로 ‘모노게네스’입니다. 영어 ‘모노(mono)’는 단일한, 유일한, 홀로 등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게네스’는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사도신경에서는 ‘외아들’이라고 번역했는데, 불충분하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번역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홀로 유일하게 존재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은 영어 번역에서 ‘a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나타내는 영

독생자의 영광

요한복음 1:14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높이고, 기뻐해야 합니다.”

광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광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 주셨습니다”(18절).

제자들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보려고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알려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차원의 존재는 상위 존재가 하위 존재에게 알려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독생자의 영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에서 나타납니다.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독생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은 눈으로 보고, 무릎을 꿇고, 경배가 일어나게 합니다. 만왕의 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과 관념으로 아는 것 자체로는 예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과 삶, 마음에 임해서 우리가 그 영광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기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

둘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입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당시 헬레니즘을 형성하는 스토아철학에서는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이성, 인격적이며 보편적인 이성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메커니즘이 있으며, 어떤 질서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인격적인 이성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부른 것입니다. 로고스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절대적 이성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이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헬라 문화에 익숙했던 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차용했습니다. “당신들이 로고스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단지 “사람이 되었다”고 설명하지 않고, ‘사룩스’, 육체 덩어리를 뜻하는 단어를 쓴 것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에 빠져서 ‘몸이 악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의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당시 이원론에 빠졌던 많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설명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마 세마’입니다. ‘소마’는 몸이고, ‘세마’는 무덤입니다. 몸은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악한 것이므로 금욕을 해야 하고, 억제해야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정신세계의 깨달음으로 만들었던 초대 교회 이단 영지주의 철학입니다. 요한일서에서 그것을 반박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육체를 악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고스가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건을 설명하는 과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독생자가 육신을 입어야만 했습니까? 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과학적인 설명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 것이 왜 불가능한가요? 그 이유는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독생자가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형태와 상태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은 상태로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여전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분으로 사람이 되셨다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입으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도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있는가?”,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과 동일한 본질일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수백 년 동안 토론하고, 항의하고, 논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비슷한 본질이 맞지 않나?”고 했습니다. 헬라어로 동질이라는 단어가 ‘호모우시우스’입니다. 비슷한 단어가 ‘호모우시우스’입니다.

(14면에 계속)

2022년 선교헌금작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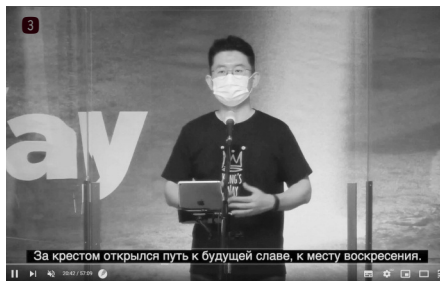
그 풍성한 온누리교회 선교의 열매

현지인 활약하는 복음의 전진기지, 이주민 사역 활성화

하나님의 선교는 언제나 계속된다. 온누리교회 선교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선교는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방울,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이주민 선교의 성장이 돋보였다. 온누리교회 선교가 열방에서 맺은 열매가 많다. 오늘은 그중 두 가지 열매를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는 '현지인이 활약하는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운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 사역의 활성화'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21년 온누리교회 선교 주요사역



1. 코로나19 재난지원 긴급구호
2. VR 체험관, 온라인 아웃리치 2021

3. 온라인 하비스트 'King's Way'
4. NGO 더멋진세상 '더 멋진 마을 조성 사업'

5. 스리랑카 라투갈러 마을 식수관 신설 공사
6. 여성 싱글 선교사들을 위한 숙소 '로렐하우스' 오픈

온누리교회 선교의 핵심가치 중 하나는 현지인을 양육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전방개척'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선교지에서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현지인들을 양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 눈물겨운 헌신 덕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동북아시아 몽골 전방 선교를 위한 복음의 전진기지를 세울 수 있었다.

선교 대상에서 선교의 주역으로!

북부 아프리카와 동부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무슬림 벨트'가(아프리카의 50%)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무슬림 벨트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선택한 전초기지가 바로 '탄자니아 프와니주 이퀴리리움'이다. 이곳은 무슬림 150만 명이 거주하는 무슬림 벨트의 핵심 지역이기도 하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조문숙 선교사와 함께 탄자니아 프와니주 이퀴리리움에 '올네이션스센터(All Nations center)'를 세웠다. 벌써 조문숙 선교사가 양육한 현지인 세 명이 올네이션스센터에서 훈련받고 현지 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지금 올네이션스센터에서는 현지

인 10여 명이 합숙하면서 제자 양육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는 서부 아프리카의 선교 요충지다. 코트디부아르는 경제와 문화가 발달했고, 접근이 편리하며,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코트디부아르 수도 아비장에 '에덴교회 선교센터'를 세웠다. 서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현지인들이 훈련받고 교제하는 공간이다. 2013년 김성윤 선교사의 '어린이 큐티방'으로 시작된 에덴교회는 현재 이보 목사가 섬기고 있다. 서부 아프리카 복음화를 꿈꾸는 현지인들이 에덴교회 선교센터에서 훈련받고 있다.

몽골에도 미전도종족인 '브리아트족'을 선교하기 위한 복음의 전진기지 '다르항 비전센터'가 세워졌다. 브리아트족은 1996년 온누리교회가 입양한 미전도종족이다. 브리아트족 주민들이 사는 마을 4곳에서 선교하고 있다. 몽골 다르항에 성도 100여 명이 출석하는 애즈니교회와 지교회 5개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브리아트족 선교에 동참할 예정이다.

몽골 다르항 비전센터에서는 일대일제자양육, 큐티, 가정사역 등의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다르항 비전센터 덕분에 몽골 교회가 선교 받

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몽골에 복음의 전진기지 선교센터를 건축한 것 자체가 고무적이다. 현지인들이 앞장서서 선교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현지인 성도들이 세계 선교 주역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 사역' 활성화

이주민공동체는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공동체 중 하나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주민들의 활동이 한껏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이주민공동체 평균 예배 인원이 1천명 정도였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절반으로 줄었다. 이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선교가 위축되고 잠들어 있던 이주민공동체를 깨웠다. 지난해 여름, 온누리교회 20여 개 공동체가 이주민공동체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했다. 한껏 움츠러있던 이주민 사역 현장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안산 스타트리협동조합(담당 이경원 선교사)이다. 안산 스타트리협동조합

에서는 카페 창업과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서 교회, 안산M센터 등을 찾지 않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간이다. 사역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된 이주민을 위한 공동체다.

온누리교회 관악금천공동체, 여호수아청년부, SNS청년부가 안산 스타트리협동조합에서 여름 아웃리치를 했다. 그것도 비대면으로 말이다. 그 아웃리치의 효과가 엄청났다. 관악금천공동체는 한 가정당 한 이주민 형제자매와 결연했다. 자선장을 열어 결연한 이주민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여호수아청년부는 이경원 선교사가 교제하고 있는 향이 자매(인도네시아)의 자녀 돌사친 촬영 스튜디오를 꾸며줬다. 그 일로 향이 자매가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다. SNS청년부는 이주민과 함께 송편 만들기, 소그룹 한국어 수업 등을 실시했다. 온누리교회 3개 공동체의 아웃리치가 불러온 효과가 대단했다.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 이후 안산 스타트리협동조합의 핵심사역인 바리스타 교육이 빠르게 안정을 찾았다. 그리고 이주민 세 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그 이주민들이 멘토가 되어서 또 다른 이주민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이주민들에게 크리스천 형제자매가 생긴 것은 덤이다.

이주민을 위한 추석집회 '하비스트(Harvest)'도 이주민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기적을 선물했다. 온누리M미션의 핵심사역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이주민 추석집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King's Way'를 주제로 막 오른 온라인 집회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오프라인 집회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확산하지 못했다. 그런데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가 맺혔다. 최근 주춤하던 러시아공동체의 이주민 추석집회 하비스트 참여율이 회복됐다. 은혜에 목말라 있던 이주민 형제자매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했다. 코로나19 이전 같은 활기를 되찾았다.

온라인 하비스트 'King's Way'의 은혜가 하나 더 있다. 안산M센터 러시아어공동체가 온전히 회복하는 모습을 지켜본 다른 교회 러시아공동체가 연합해서 온라인 사역을 시작했다. 10여 개 러시아공동체가 모여 '세상보다 크신 예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2021 선교보고
QR코드

“가족과 함께 새해 계획 세워보세요!”

하은, 하준 남매가 세운 희망찬 새해 계획



2022년, 새해가 시작됐어요! 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은 2021년을 어떻게 보냈나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2022년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싶은지 새해 계획도 세워보세요. 김하은(서빙고온누리교회 꿈팍), 김하준(서빙고온누리교회 예꿈) 남매가 희망찬 새해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코로나19로 1년 6개월 동안 온누리교회 차세대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었어요. 하은, 하준 남매도 교회에 가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친구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 아쉬운 시간을 온라인(Zoom) 예배로 달랬다고 해요. 매주 영상 예배를 드리고, 매일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이 좋아요>를 활용해서 큐티를 했습니다. 부모님과 성경필사도 함께하고,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도 같이 불렀다고 해요.

하준: “친구들과 선생님을 진짜로 만날 수는 없었지만, 스마트폰으로 만나서 좋았어요. 성경퀴즈 맞추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매일 영상 예배 시간을 기다렸어요.”

하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설교와 퀴즈를 준비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매일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필사도 하고, 찬양도 같이 부르는 시간도 좋았어요!”

하은, 하준 남매가 얼마 전에 차세대 어드벤처 활동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동방박사를 예수님게로 인도했던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그리고 색칠도 했대요. 예쁘게 만든 장식품

을 크리스마스트리에 걸면서 예수님 생일을 가족과 함께 축하했다고 해요. 천지창조 순서에 맞춰 모빌을 만들면서 천지창조 공부도 하고, ‘감사나무’를 만들어서 한 해 동안 함께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해요.

하은: “며칠 전에 부모님과 함께 우리 가족 ‘감사나무’를 만들었어요.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나뭇가지에 적었어요. 드라이브스로 교회에 가서 목사님과 선생님을 뵈 수 있던 것, 사순절 성경쓰기에 함께 참여했던 것, 예배당이 열려서 다시 교회 갈 수 있었던 것, 가족을 주신 것, 이웃을 주신 것,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적었어요!”

하준: “크리스마스트리에 동방박사가 따라갔던 별을 그려서 붙였어요. 부모님처럼 누나랑 예수님 생일을 축하할 수 있어서 기뻐요. 또 천지창조 모빌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순서를 공부했어요!”

하은, 하준 남매가 2022년을 기대하면서 새해 소망을 세웠다고 해요.

하은: “이제 6학년이 되는데 초등학교에서 마지막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준비를 잘해서 중학교도 즐겁고 행복하게 다니고 싶어요.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준: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누나처럼 학교생활을 잘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공부도 즐겁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부모님, 선생님께 칭찬받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온누리교회 차세대 친구들도 가족과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2021년 기억에 남은 일, 감사했던 일, 아쉬웠던 일 등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또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어린이가 되고 싶은지 등을 적어보세요. 가족과 함께 새해 계획 세우기 활동을 한 다음 사진을 찍어 이메일(hha0@onnuri.org)로 이름과 소속, 연락처를 적어 보내주시면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게재하고,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성경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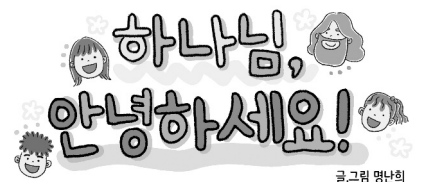
출제범위: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2
비유와 기적 3단원 ‘고치시는 예수님’(저학년용)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고쳐주셨나요? 아래 문제를 읽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들을 모두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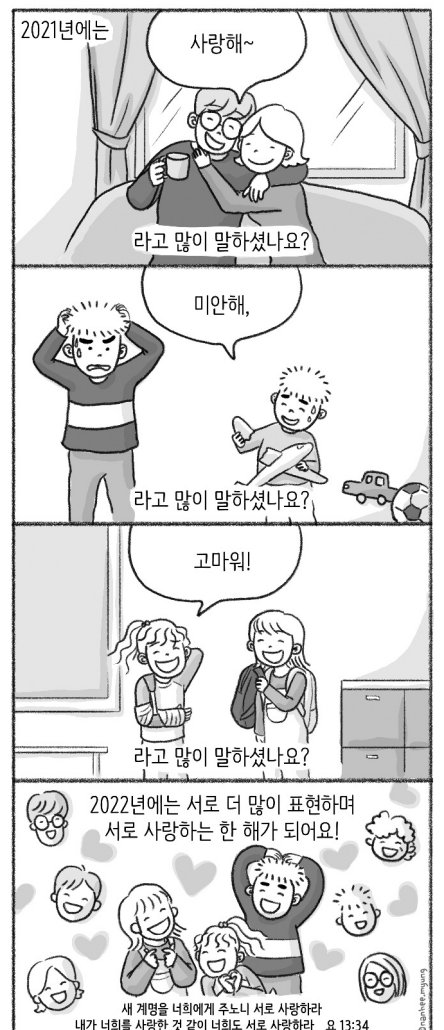
- ① 중풍 병자
- ② 귀신 들린 사람
- ③ 혈루증 앓는 여인
- ④ 감기 걸린 사람
- ⑤ 아이로의 딸
- ⑥ 죽은 나사로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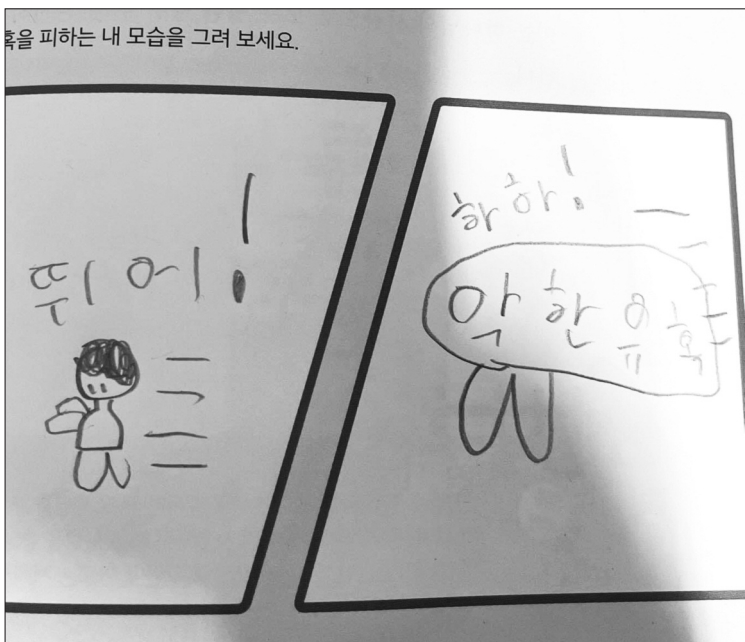


글그림 명난희

12. 표현



우리들 작품



〈악한 유혹으로부터 도망치기〉

악한 유혹을 만나면 열심히 도망가야 해요! 악한 유혹이 쫓아오는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도망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 김하은 학생(강동온누리교회 꿈팍)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에 따라 천지창조 모빌을 만들었어요! 천지창조 순서를 정확하게 외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 김하은, 김하준 남매(서빙고온누리교회 꿈팍, 예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에게 빛을 찾아주고 싶다”

안과 전문의 윤창균 선교사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소망



윤창균 선교사가 에티오피아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이 한창이다. 이번 새벽기도회에서 성도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다. 윤창균 선교사(안과 전문의, 에티오피아 선교사)도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서 세상의 축매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

게 해야 할지를 기도하고 있다.

에티오피아는 국토 대부분이 해발 1,000m 이상의 고산, 고원지대다. 수도 아디스아바바는 해발고도가 2,300m나 된다. 해발고도가 높은 탓에 대다수 국민이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백내장을 앓고 있다. 백내장은 한국에서는 쉽게 진

단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시력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다.

“에티오피아 국민이 1억2천만 명인데 안과 의가 140여 명에 불과합니다. 모든 의료시설이 수도에 집중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은 사실상 안과 진료를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윤창균 선교사는 어려서부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26)는 말씀을 품고 의료 선교사를 꿈꿔왔다. 안과의사로 경력을 쌓던 2015년 4월 에티오피아 지방 도시에서 열린 백내장 수술 캠프에 참가했다. 그때 윤창균 선교사는 의료환경이 미약한 나라야말로 자신을 꼭 필요로 하는 선교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 돌아온 윤창균 선교사는 시력교정 안과를 떠나 백내장 수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녔다.

“에티오피아 백내장 환자들은 증세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심한 백내장 환자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천안 김안과 정도현 원장님을 만나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윤창균 선교사는 천안에서 백내장 진료, 수술 경험을 쌓으면서 매년 해외 백내장 캠프를 다니며 선교의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2019년 KOICA 글로벌협력의사 5기로 에티오피아에 갈 수 있게 됐다. 윤창균 선교사는 2019년 8월 1일부터 아디스아바바의 국공립병원 라스데스타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백내장 수술을 집도하기도 하고, 현지 의료진 교육과 의료시설을 구축했다. 그런데 2020년 11월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발발해서 임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에티오피아 내전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에 참가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번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설교를 들으면서 먼저 소금이 되어 녹아 없어짐으로써 세상을 자극하고 변화시키는 축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서 에티오피아에 다시 가서 사람들에게 빛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2021-22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기도제목과 은혜

〈서빙고 예배지원팀〉

“제 힘으로는 손해 보면서 살 수 없고, 치욕을 받으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묵상하며 낮아지는 삶, 섬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 최병선

“세상의 법과 마음의 소욕을 넘어 십자가의 법도를 따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 하상진

“성령의 불로 입술을 태워서 새 생명의 언어, 진실된 언어만 선포하게 하소서.” / 이종선

“입술에 정직을 달라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호경

〈남양주온누리교회 다와3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닮은 인격체로서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성결케 하옵소서.” / 임현태 장로

“위선자, 배반자, 이중인격자, 기회주의자 되지 않게 거짓된 입술은 끊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언어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 김차남 권사

“음란한 이미지가 넘쳐나는 시대에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거룩한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지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 안문훈 집사

“살인자요, 행악자요, 간음자인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날마다 저의 눈과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다스려주세요. 저의 변화를 통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저의 변화를 보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 박봉주 순장

〈이촌공동체 사랑다락방 사랑5순〉

“무의식의 동기까지도 성령님 주장하여 주소서!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회개하며 돌아키며 나아갑시다.” / 신동필

“죄, 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소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천국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소서.” / 박옥자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주관하게 하옵소서. 성령충만케 하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 김미숙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지킬 능력도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찾게 하소서. 사랑5순 모든 가족 안에 성령님 임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김경진

〈관악금천공동체 믿음3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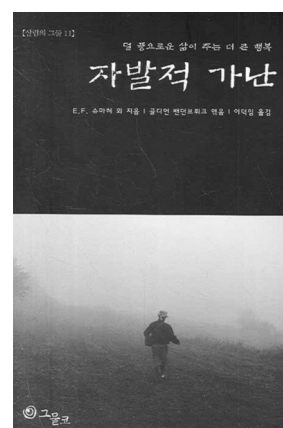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 허윤한 집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 모두를 통하여 드러나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임영재 집사

“떨(권영림 목사)이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 목사로 부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기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허락하소서.” / 김명옥 권사

새벽기도회와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물질의 부유함과 관계의 부요함



〈자발적 가난〉
E.F. 슈마허 외 저 | 그물코
| 9,000원

저자주는 내적 만족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고 부요하게 하는지를 이 책이 알려준다.

오늘날 우리가 물질의 부유함(being wealthy)을 누리면서 관계의 부요함(being rich)은 얼마나 빈곤한가. 행복을 바라지만 결코 행복에 이를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자발적 가난을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2022년 산상수훈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새해를 참으로 풍요롭고 자유롭게 영혼의 평안을 느끼면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 허원희 목사(남양주온누리교회)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한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듣는 이가 자신을 돌이켜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이 무척 불편했는지 철학자 니체는 “산상수훈은 소위 연약한 자들이 자신의 악함을 미덕으로 바꾸어 심리적 보상을 받으려고 만들어낸 말”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악함을 미화시켜 심리적 위안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가난과 애통과 핍박과 같은 인생의 비극적 요소를 어떻게 이겨내는지 알려주시는 능력의 말씀이다.

산상수훈의 대표적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명제는 오늘날 만연한 소비위주의 삶과 무분별한 개발로 심각한 생태위기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심령의 가난만이 그 해결책임을 알려준다. 역설적이게도 빈곤을 이겨내는 것은 부유함이 아니라 ‘자발적 가난’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결코 빈곤함이 아니며 소유를 축적하지 않는 삶이자, 단순하고 검소하게 사는 청빈의 삶이다. 스스로 족함을 알고 덜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내적 만족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고 부요하게 하는지를 이 책이 알려준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of the World

◆ 12월 20일 월요일

이혼의 금지

마태복음 5:31~32

이기복 목사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아내와 이혼하려거든(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고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데, 음행한 연고 외에는 그리하면 안 된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아내를 버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동일한 문제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날마다 모세오경, 창세기를 읽지 않느냐? 창

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모세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혼 증서만 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과 악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본래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러나 너희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성들을 보호하는 최소의 보호장치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

내라고 한 것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적 자유’, ‘젠더’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결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말고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배우자 선택할 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해야 합니다. 집안, 학벌, 재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인품, 성품, 믿음을 선택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부부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는 것을 믿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신실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결혼생활에 있어서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남편은 절대로 바랄필 일 없다, 내 아내는 절대로 한눈팔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손만 뻗으면, 눈만 돌리

면 온갖 음란물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이혼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이혼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급하지 말기를, 급하게 결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분노로, 자존심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인내하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보십시오. 가정을 지키기로 선택한 부부에게 주는 보상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넷째, 이미 이혼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 가정의 사정에 대해 아무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혼한 배우자를 용서하고, 자녀들에게도 잘 설명하고 보듬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축복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하나님께 최고로 드려야 합니다.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을 멋지게 사시고, 모든 분노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 12월 21일 화요일

맹세

마태복음 5:33~37

이재훈 목사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럽고 추악한 말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거짓된 말, 잘못된 언어가 국민을 힘들게 합니다. 가족의 잘못 내뱉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 때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인간의 모든 말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탄이 말씀에 대한 의심을 하와에게 불어 넣었을 때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나

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없는 말을 덧붙임으로 인간에게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언어의 타락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는 혼란하고, 거짓과 왜곡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힐 때 반드시 함께 못 박혀야 하는 것이 혀와 입술입니다. 가장 먼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언어, 정죄와 미움의 언어, 불신의 언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새 생명의 언어, 살리

는 언어, 진실한 언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맹세를 남발하고, 맹세로 자신의 거짓을 포장하는 문화를 지적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자신의 거짓을 포장하고, 과장하고, 회피하는 방식으로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맹세를 남발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언어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진실성을 포장하고, 과장하기 위해서 맹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속에는 말의 거룩한 능력이 회복됩니다. 내면의 진실한 언어가 회복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변화됩니다.

진실한 인격이 나타나는 언어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옳은 것은 “예”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한 언어가 우리 공동체 안

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문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고 더해지거나 빠지면서 전혀 다른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말은 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내뱉은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탄이 일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우리의 언어가 성화되고,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언어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 12월 22일 수요일

오른뺨에 왼뺨도

마태복음 5:38~42

이재훈 목사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 말씀을 행하라고 하시는지 답답함을 줍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삶 속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과 의심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보다 세상의 방식에 얼마나 익숙한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눈으로’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38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복수를 조장하고 권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피해를 본 경우에 개인이 피로 복수하지 말

고, 국가의 법적인 기능(공권력)으로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게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욕, 강탈당함, 폭정에 시달림 등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네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마저 돌려대라고 하셨습니다. 뺨을 때리는 것만큼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행동이 없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지만, 분노와 미움으로 대하지 않고 왼뺨까지 대는 마음의 여유와 너그러움과 관용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둘째, 누가 속옷을 가져가려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습니다.

겉옷은 중동의 추운 밤에 입는 외투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셋째, 1밀리온을 가지고 하거든 2밀리온을 같이 가라고 하십니다. 1밀리온은 1.5km입니다. 로마제국이 지배하던 당시 로마 군병이 사람들을 1밀리온을 불러서 강제노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강제노역을 시키려는 군병에게 2밀리온을 가주라고 하십니다. 넷째,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고, 꾸려고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의거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우리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대로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불의한 이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로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수없이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받으신 모욕과 고통을 그들에게 갚을 수 있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복수는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욕과 채찍에 분노와 저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하는 희생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악물고 참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깊이 회개한 영혼이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못 박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 선으로 악을 이긴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of the World

◆ 12월 23일 목요일

하나님처럼 너희도

마태복음 5:43~48

이재훈 목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입니다. 상대방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배신하고, 원수로 여겨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반

항하는 원수 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삶이요, 성품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비현실적인 삶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보면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별개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지나가는 길을 가지 않고 먼 길을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을까요? 감정적으로 좋아서가 아니라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향해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좋아하는 감정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첫

번째 길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 같은,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온전함은 가장 자녀다운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상처로 깨어지고, 갈라지고, 서로 증오하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서로 돕는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육신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24일 금요일

선한 디벨로퍼를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2:20

김규철 대표(NIBC)

‘NIBC’라는 이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not I, but Christ”(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을 축약한 것입니다. NIBC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보자고 모인 공동체입니다. NIBC 한동대학교 공동체, NIBC 선교 공동체, NIBC 비즈니스 공동체가 있습니다. NIBC 한동대학교 공동체에서는 매 학기 40여 명의 학생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NIBC 선교 공동체는 NIBC 한동대학교 공동체에서 헌신한 선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NIBC 비즈니스 공동체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한국에서 부동산개발, 호

텔,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NIBC 훈련을 받으면서 간신히 거룩한 척 살던 제가 졸업하고 학사장교가 되느냐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가느냐 기로에 섰습니다. 저를 훈련시키던 교수님께서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주님의 뜻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공병장교가 돼서 전문지식을 쌓고 선교사적 삶을 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규철아, 90% 말고 100% 삶을 맡겨보지 않을까? 내가 네 삶을 100% 계획해보면 어떻게겠니? 나와 더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20여 년 동안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나 평신도나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만 목숨을 다해 주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교사들은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도 때 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비즈니스의 세계입니다. 그곳이 저의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두려움 속에 소중히 간직했던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저와 제 공동체와 이웃이 더 친밀해질 수 있다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입니다. 선교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너무

편해서 주님과 친밀할 수 없다면 새로운 선교지로 찾아가야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동굴에서 매 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의 삶이 복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쫓기며 살더라도 주님과 가장 친밀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곳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우리가 이 말씀처럼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처럼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고 예수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가능합니다. 저는 날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처럼 주님을 닮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닮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 12월 27일 월요일

품으시는 하나님

창세기 1:2

강동진 대표(보나콤)

저는 목사지만 건축을 합니다. 농사도 짓습니다. 교회 집회보다는 농업을 가르치려 더 많이 다닙니다. 가난한 나라 국민이 농업과 양계를 통해서 자립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네 단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단어가 ‘혼돈’입니다. 혼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매우 독특합니다.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다’ 정도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가 혼돈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완벽하게 무너

졌습니다. 이 모습이 혼돈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공허’입니다. 혼돈과 매우 흡사한 단어입니다. 혼돈이 모양과 관계있다면 공허는 생명과 관계있습니다. 직역하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다’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저와 여러분도 공허한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흑암이 깊다’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흑암이 깊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둠이었습

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주의 시온에 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거듭나기 전의 우리의 실존을 말합니다. 네 번째 단어는 ‘수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고 합니다. 물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가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은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흠모할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우주의 실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보고 처음 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보다 선행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운행’했다고 했습니다. ‘라하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하면 암탉이 날개를 퍼서 새끼를 품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주를 와락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온 만물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으셨습니다.

제가 충청도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2년 반 만에 마을 주민 절반이 예수를 믿었는데 5년 만에 공동체가 두 파로 갈라져 치열하게 싸웠습

니다. 1박 2일 싸우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땅을 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입니다. 제가 시작한 저의 공동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사업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실패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입에 풀칠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린 것 같은 고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도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에 빠졌더라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가 기도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세상의 소금과 빛

Salt and Light of the World

◆ 12월 28일 화요일

사람보다 하나님

마태복음 6:1~4

이재훈 목사

산상수훈 말씀은 우리를 거울 앞에 선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매일 한 번은 겉모습을 돌아보고, 더러운 곳이 있으면 씻어냅니다. 그러나 영혼의 거울 앞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우리 영혼의 더러운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쁜 동기로 나쁜 행동을 하는 것만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행실도 나쁜 동기로 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나쁜 동기를 가지고도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선한 행실을 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 가지 영역에서 지적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얼마나 선한 영역의 일들입니까?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우리가 외식과 위선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으

로부터 떠난 상태입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광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영광에 대한 굶주림을 채우려고 서로 경쟁하고, 피 흘리며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광에 대한 굶주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출 때만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때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자리를 세상 다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할 때 선한 의식을 하면서도 자신을 영광스럽게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끓어 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에도 한 손에는 구제금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불며 알려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남모르게 숨어보시

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인정과 영광을 얻기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선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3절)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선행을 의식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도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의식하는 봉사와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면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 12월 29일 수요일

하나님의 선택과 아벨적 공동체

창세기 28:10~22

천종호 목사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다음 가인, 아벨, 셋을 낳았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경제인, 예술가, 장인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 일들은 성을 중심으로 정착 생활하는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직업입니다. 정착 생활을 하는 공동체는 노동집약적이며, 인간의 힘과 세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끝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공동체를 ‘가인적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인 셋의 후손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적은 가인의 후손들

과 사뭇 다릅니다. 직업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비로소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 에노스,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에녹,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 노아 등을 통해 언급될 뿐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아벨적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부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셋을 통해 소망한 것이 아벨의 부활이었다면, 우리는 셋의 후손들을 아벨의 후손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두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는 공동체의 주권자가 누구냐입니다. 가인적 공동체의 주권자는 인간입니다. 아벨적 공동체의 주권자

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애초부터 인류의 역사는 가인적 공동체와 아벨적 공동체가 대립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주류는 가인적 공동체였지만, 아벨적 공동체는 절대 소멸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적 공동체와 아벨적 공동체는 하나님의 예지와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의 기반을 구축 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가족 간의 막장드라마의 출발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리브가가 출산 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을 아꼈습니다. 에서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은 야곱이 얻은 현실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빈털터리로 집을 나와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종살이하며 모든 돈도 형에게 빼앗겼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아버지 이삭이 준 축복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하던 중 만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이삭이 축복을 내려도 하나님께서 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섬기는 아벨적 공동체는 인간이 공동체를 만들고, 주권자로 하나님을 청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공동체 구성원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은 온전한 자가 아니라 타락한 자입니다. 인간들을 사용하심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만, 하나님은 감수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배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력과 권력을 추구하는 순간 가인적 공동체로 전락합니다. 아벨적 공동체, 나그네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향해야 합니다. 아무런 갈등 없이 평화롭게 산다는 것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고난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 12월 30일 목요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10:17~19

노규석 목사

이주민 선교를 하다 보니 이주민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야기 예수님도 난민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에서 말도 안 통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머무는 동안 아마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다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난민 생활의 밑천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주민이었습니다. 가나안 여인 라합과 모압 여인 룓을 보면 다문화가정 여인들이 보

입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고,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는 영혼들이 이 땅에 와있는 이주민들입니다. 누가 그들의 소망이 되어줄까요?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있습니다. 난민 어린이들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서 요셉의 얼굴이 보이고, 다문화가정 여인들

에게서 라합과 룓의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누리교회에 M센터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 미등록 여민이가 2만 명 정도입니다. 외국인끼리 낳은 아이가 있고, 잘못된 사건으로 임신해서 낳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멀리한다면 그 아이들이 유럽에 등장하는 외로운 늑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품는다면 그 아이들이 요셉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민족은 불과 70년 전에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먹여 살려주셨고, 오늘 대한민국을 이뤄주셨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졌다고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나라와 사람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

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주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죄를 씻는 심정으로 이주민 선교, 다문화 선교를 온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M센터에는 신학생과 대학생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온누리장학회와 OCC, 서초B공동체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다 보니 더 많은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의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를 먹여 살리고,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고, 다음세대를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몸 된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선교를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라떼는 말이야

“주저함과 두려움을 넘어 결단하라!”

“어느새 30대 중반 적지 않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의 제일 관심사는 결혼과 재테크입니다. 특히 결혼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멘토님은 배우자와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셨는지요? 멘토님의 경험담에 비추어 결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들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멘토님!”

결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직후 세우신 신성하고 복된 계획이다. 결혼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다(창 1:27~28, 2:18, 2:24). 비혼주의가 늘어나는 시대에 결혼을 꿈꾸며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정을 이루려는 청년들을 주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친히 인도하고 싶어 하실까? 결혼에 관한 질문은 결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직접 의뢰하는 것이 맞다. 어떤 청년들에게는 귀가 따갑게 들어온 진부한 조언일 수 있겠으나 안다고 모두 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도 없이 묻는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한다.

“이미 예비해 두신 배우자를 찾기 위한 기도를 먼저 시작하라.”

원하는 배우자감에 대한 목록을 만들고 기도하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을 걸러내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를 구하라.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자신이 결혼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결핍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경험이 된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막연히 ‘내게 잘 맞는 사람을 주실 거야’라고 ‘골방기도’만 하지 말고 예비하신 배우자를 찾아서 행동반경을 넓혀보기를 권한다. 소속 공동체를 벗어나서 같은 심정으로 배우자를 찾는 청년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라. 청년부 멘토로 섬긴 10년 동안, 특히 아웃리치 현장에서 눈을 맞추고 뜻을 맞춰 결혼까지 이어지는 커플들을 많이 봤다. 아웃리치 현장에서 경험하는 서로의 민낯은 여러 번의 데이트보다 상대를 더욱 진솔하게 알게 해준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 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찾라. 때와 기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이다.

공동체 안에서 사귀게 될 때 가까운 친구들과 영적 리더, 교역자에게 공개할 것을 권한다. 객관적인 조언도 얻고, 데이트 상대와 서로 지켜야 할 경계를 지키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신중하고 안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공개를 꺼리는 이유로 부득이 헤어지게 될 때 갖게 될 부담을 든다. 신중할 필요는 있겠으나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글까. 만약 헤어지더라도 나쁜 상태였다는 부정보다는 잘못지 않아서 서로에게 유익한 결정을 했다는 성숙함을 배우게 된다. 예비하신 배우자라는 확신 속에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사계절의 시간을 함께 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사계절은 1년이라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설레는 봄, 뜨거운 여름, 성숙해지는 가을, 흑한의 추위로 냉랭해지는 겨울 같은 연애의 감정을 두루 거치다 보면 결혼은 현실이라는 자각이 생긴다. 데이트나 연애와 관련해서 기독교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세미나나 강의 영상도 함께 보며 배우는 적극성도 갖기를 바란다.

크리스천 남성 청년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에서 자매들이 많이 묻는 질문이 있다. 만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이다. 대학 1학년 때 대타로 급히 나가게 된 소개팅에서 아내를 만났다. 6년의 사귀 끝에 결혼하고 함께 유학길에 오를 때에는 어머니의 인도로 세례 받은 새내기 크리스천 커플이 되었다.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 배우자 후보를 만나게 될 때 무조건 내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권한다.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은 물론 자신의 몫이니 대가를 치를 각오하고 신중하기를 바란다. 결혼에 비학교, 결혼세미나, 커플 상담 등 결혼 준비 교육에 반드시 참여할 것을 권한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가르침을 배우고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는 훈련의 기회가 된다. 특히 재정에 발목 잡혀 결혼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감히 충고한다. 원룸을 빌려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임을 체험하는 기회도 특권이다. 낯선 타국의 방 한 칸 월세 아파트에서 시작한 우리 부부의 살림살이는 바다부터 같이 이루어낸 추억으로 인해 더욱 애뜻하다. 올해도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물에서 30년을 훌쩍 넘은 낡은 솔방울을 꺼내면서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정에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청년들이여, 주저함과 두려움을 넘어 결단을 결단하라! 부부가 함께하는 일상의 삶에 하나님을 담아내고 드러내며 창조주 하나님을 힘써 깊이 알게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한다.



김준 장로
(여호수아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부부는 ‘이인삼각’ 경기 선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부부는 서로 수고했고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한다. 서로 애쓰고 고생한 것에 대한 마음 깊은 감사를 표하는 것이 좋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부부는 새로운 경기 트랙에 들어섰다고 표현할 수 있다. 새해에도 부부가 함께 경험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하는 것이 좋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여정을 운동에 비유하면 ‘이인삼각’ 경기가 적당할 거라고 본다. 처음 이인삼각 경기에 참여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경험한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파트너에 의해서 걸음이 멈춰지고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기도 한다.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걸음이 주춤거리고, 뛰는 것이 우스꽝스러워지고, 넘어지면서 웃어넘기지만, 원망과 불평을 파트너에게 쏟아내기도 한다. 화를 쏟아낼수록 그 팀의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둘이 마음을 합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끊임없이 격려하고, 소통하고,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에 맞추려는 배려가 필요하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황혼 이혼율이 신혼기 이혼율을 넘어섰다. 자녀들이 출가할 때까지

참고 살아가다가 여생을 자기답게 살기 위해, 잃어버린 자신을 찾기 위해, 그동안 서운했던 것이 쌓여서 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결혼하면서 꿈꾸던 그림이 아닐 것이다. 서로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다시 돌아볼 수 없는 것일까?

오랜 결혼생활 이후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라면 갈등 회피와 불만 축적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인삼각 경기 같은 인생의 경주에서 쌓인 불만과 섭섭함, 분노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삶의 결승점 같은 지점에서 함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부부는 갈등과 불만을 마음에 쌓아두는 패턴을 바꿔서 조화로운 부부, 활기 있는 부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화롭고 활기 있는 부부는 관계상에 문제와 갈등이 있지만 서로 잘 타협하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포용할 수 있는 해결력과 타협력을 가졌다. 문제가 없는 부부가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유연성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타협 능력과 수용하는 힘이 있다. 배우자에게 비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을 성숙하게 필터링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개개인의

심리적 성숙성과 안정성이 있다. 배우자 각자에게 필요한 영역이다. 부부의 역동과 부부의 순환 방식이 결혼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심리적 성숙, 자존감의 성장과 안정이 그 기반이다. 틀림없이 부부에게는 순간순간 당면하는 이슈들이 있다. 신혼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적응하는 이슈가 있다. 서로 대화로 조율하고 해결해간다면 더욱 견고한 부부 관계를 세워갈 수 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자주 넘어지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 이야기하고 결정했던 많은 신혼기 이슈들이 결정한 대로 되지 않고, 무시될 때가 있거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때가 참 힘들다. 기대가 무너지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극도로 높아진다. 참을 만큼 참다가 폭발하는 경우도 생긴다. 주로 신혼기에는 역할에 대한 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기보다 부부마다 역할을 조율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시기 부부가 맞벌이까지 하면 정말 많은 노력과 대화로 역할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하면서 ‘독박육아’를 한다고 느끼는 배우자의 섭섭함과 분노의 강도가 상당히 높게 인식되어야 한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 정

신적, 정서적 한계를 넘어서는 스트레스를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삶의 힘겨움을 경험하고, 배우자와 잦은 다툼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서로의 아우성, 불만 표출, 서로에 대한 요구와 기대, 잔소리는 사실 “내가 힘들다”, “나를 좀 이해해줘”, “내가 위로가 필요해”라는 절실한 표현이다. 힘든 시간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지지자가 되어줘야 한다.

가족생활 주기에서 만나는 역할 이슈와 갈등을 잘 넘어간다면 결혼이라는 이인삼각 경기를 잘 할 수 있는 신뢰와 경험이 쌓인다. 반대로 서로 얹히고, 함께 넘어지고, 불만이 쌓이고, 서로 풀지 않고 갈등을 회피하면 이인삼각 경주를 완수하지 못할 수 있다. 부부는 이인삼각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해 모든 부부가 의기투합해서 달려갔으면 좋겠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선배

조선의 바울, 김창식 목사



'머슴 바울, 김창식' (권혁만 감독 / 뮤지컬 다큐멘터리 / KBS 1TV 방영)

한국인 최초 목사로 알려진 조선의 바울 '김창식 목사'의 삶이 지난 성탄절(25일) KBS 1TV에서 방영됐다. 뮤지컬 다큐멘터리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기획된 '머슴 바울, 김창식'은 김창식 목사의 회생과 헌신, 사랑의 이야기가 노래와 어우러져 보는 이들에게 더 크고 깊은 감동을 선물했다.

김창식 목사는 1901년 5월 14일 서울 정동교회에서 김기범과 함께 한국인 최초로

목사안수를 받았다. 머슴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로써 헌신하며 사역자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흥미롭다.

김창식 목사는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 전국을 떠돌며 양반집 머슴과 마부, 장돌뱅이, 지게꾼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정처 없이 떠돌다가 서울에 남대문 시장에서 막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때 "서양인들이 조선 어린이들을 유괴해서 살아 먹는다"는 흉흉

한 소문을 들었다. 그 소문을 듣고 격분한 김창식 목사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 1888년 감리교 선교사 올링거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간다. 김창식 목사는 2년 동안 올링거 선교사 집의 머슴으로 일했지만 흥흥한 소문의 증거를 잡을 수 없었다. 오히려 선교사들은 머슴인 김창식 목사에게도 늘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했다. 바로 그것이 김창식 목사가 기독교를 알고 싶었던 결정적 이유였다.

올링거 선교사가 김창식 목사에게 한글 쪽복음 '마태복음'을 건넸다. 김창식 목사는 그렇게 가난하고, 슬프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복음을 접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같은 해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정식 교인이 되었다. 제임스 홀 선교사와 함께 평양에서 진료소를 겸한 예배당을 마련하고 복음을 전했다. 전도인으로 선교사역을 막 시작한 김창식 목사를 기다리는 것은 평양 기독교도 박해사건과 청일전쟁이었다.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해 배교를 강요하며 잔혹한 고문을 가했다. 모진 고문 끝에 많은 사람들이 굴복했지만, 김창식 목사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면서 버텼다.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김창식 목사에게 '조선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

평양 기독교도 박해사건과 청일전쟁이라는 고난 속에서 김창식 목사와 제임스 홀 선교사 부부의 인연이 더욱 깊어졌다. 제임스 홀 선교사는 평양 감옥에 갇힌 김창식 목사를 구해냈고, 김창식 목사는 의사인 홀 선교사 부부를 도와 전쟁 부상자들과 전염병 환자들을 돌봤다. 이후 김창식 목사는 평생 전국을 떠도는 순행목회를 했다. 순행목사로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1929년 1월 9일 72세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창식 목사와 제임스 홀 선교사의 사랑과 헌신이 대를 이어 나타났다. 김창식 목사의 아들 김영진과 홀 선교사 부부의 아들 셔우드 홀이 훗날 의사가 되어 해주 구세병원에서 다시 만났다. 결핵 환자 치료에 뜻을 모아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실을 발행했다. 두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두 아들이 또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했다. KBS 홈페이지 또는 OTT 웨이브(Wave)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두란노 신간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마음여행 집필진 | 두란노 |
17,000원

이해해야 하는지, 정신과 치료와 신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정신 질환의 정확한 의미와 건강한 치료를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돕는 교회 리더십, 목회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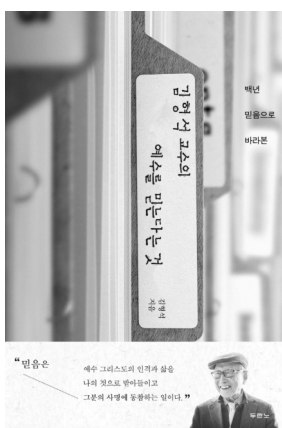
이 책을 쓴 '마음여행'은 대한기독교정신과의사회 산하 부산지부 회원 8명이다. 기독 정신과 의사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함께 고민하며 학술 활동과 기도 모임을 하는 단체다. 이 모임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정신 질환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사실을 공감하고 책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를 집필했다. 정신과 의사의 시각에서 정신 질환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앙의 영역과 의학적인 치료의 영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마음이 우울한데 믿음이 없어서일까?',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은 비신앙적일까?'

우울증을 앓는 크리스천들이 호소하는 고민이다. 많은 크리스천이 마음의 병이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독, 조울증, 우울증, 불면증 등 많은 정신 질환을 의학적인 문제라기보다 신앙의 문제로 여기면서 말쑥과 기도로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신 질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이 마음의 병이 더욱 깊어진다.

정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들이 발벗고 나섰다. 책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더욱 건강한 방식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쓴 안내서다. 기독교 관점에서 정신 질환을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김형석 저 | 두란노 | 15,000원

생을 살아오며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한 세기를 지나는 그의 믿음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발견하게 된다. 김형석 교수는 참다운 신앙을 이렇게 정의한다.

"참다운 신앙이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삶이다. 그런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영원히 남아야 할 무엇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살 수 있다는 자기 결단과 노력을 역사 속에서 영원을 사는 길이라고 부른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믿음을 돌이켜 보고 싶은 성도,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성도,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나는 스스로 자라기보다 신앙이 나를 자라게 만들었다."

올해 103세 된 김형석 교수의 고백이다.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는 많은 크리스천 후배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책 〈김형석 교수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김 교수가 걸어온 믿음의 과정을 세세하게 담았다. 신앙 안에서 깨달은 삶의 지혜를 후배들과 가까이 나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만 가볍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이 따르는 무거운 일임을 전한다.

이 책은 열네 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부터 100년이 넘는 인생을 살아오며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하다. 한 세기를 지나는 그의 믿음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발견하게 된다. 김형석 교수는 참다운 신앙을 이렇게 정의한다.

"참다운 신앙이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삶이다. 그런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른다. 영원히 남아야 할 무엇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살 수 있다는 자기 결단과 노력을 역사 속에서 영원을 사는 길이라고 부른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믿음을 돌이켜 보고 싶은 성도,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성도,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잃은 다음'

요란한 갈채에 홀려

미세한 울림을 놓치고

한참 달리다 보면

빛을 등지고 달리지

제가 입힌 상처를 싸매려

한평생을 쏘다니리

크고 많은 걸

붙박이로

받고 얻었기에

어찌 다 감지하랴

잃은 다음에야 겨우

빠진 걸 알아차리지

온 누리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축하예배, 전도, 이웃사랑, 생명 보호 캠페인

온누리교회 크리스마스는 온 누리를 위한 아주 특별한 축제였다. 온 누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눴다. 12월 25일 성탄축하예배 ‘온가족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The Gift’가 막 올랐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크리스마스 콘서트에는 오미희 권사(배우) 사회, 미스터 브라스, 소프라노 김영미 권사, 남성 합창단, 더블레싱, 교역자 특순팀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허브대학부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12월 25일과 26일 전도집회를 열었다. 25일 청년 454명(예배당 260명, 온라인 194명), 26일 청년 406명(예배당 260명, 온라인 146명)이 참석했다. W청년부에서도 12월 26일 전도집회 ‘크리스마스 선물’을 개최했다. 전도대상자 10명 중에서 7명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



지난 12월 25일 강남에서 열린 ‘아름다운 피켓’ 크리스마스 캠페인.

남대문희망공동체(사회선교본부)는 여호수아청년부 소속 청년 20명과 함께 남대문5가에서 성탄절 축하사역을 했다. 선물(떡, 마스크, 내복, 방한 의류 등) 150개를 남대문5가 쪽방촌 주민들에게 나눠줬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생명 보호 캠페인으로 표현한 성도들도 있

다. 아름다운 피켓(대표 서윤화 목사) 크리스마스 캠페인 ‘원치 않는 임신 예방해요’에 참가했다. 우정현 집사(강남D공동체)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깊은 날 생명을 살리는 작은 걸음을 한 것 같아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 정현주, 홍하영 기자



홍정길 목사(밀알복지재단 이사장)가 온누리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굿월스토어, 온누리교회에 감사패 전달

10년 동안 물품 70만 점, 21억 상당 기부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목사) 굿월스토어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협력교회(온누리교회, 송내사랑의교회, 서울광업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굿월스토어는 국내 최초 소매유통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결합한 재사용품 판매장이다.

온누리교회는 2011년 4월부터 매년 장애인 주간마다 굿월스토어 물품 기증 캠페인을 해오고 있다. 2018년부터는 수원, 인천, 남양주 등 캠퍼스로 굿월스토어 물품 기증 캠페인을 확대해서 더 많은 성도들이 동참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물품을 기부하

는 등 수년째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10년 동안 온누리교회는 물품 70만 점, 21억 상당을 기부했다.

홍정길 이사장(밀알복지재단)은 “한국 교회의 꾸준한 나눔이 장애인들의 즐겁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쓰지 않는 물건 나눔으로 장애인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적이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밀알복지재단 굿월스토어는 개인 및 기업에서 기부 받은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장애인 고용과 재활을 돕고 있다. 현재 전국 13개 지점에서 장애인 273명이 일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희망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세대 희망심기’ 캠페인 후원저금통 회수 중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이 ‘차세대 희망심기’ 캠페인에 참가해서 NGO 더멋진세상에 보낸 후원저금통을 회수하고 있다.

차세대 희망심기 캠페인에서 모은 소중한 헌금은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서 아프리카 르완다, 말라위, 부르키나파소에 사는 어린이들에게 긴급구호식품(식량, 영양식품, 위생용품 등)과 학용품 패키지(교복,

가방 등)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아직 후원저금통을 보내지 않은 차세대들은 우편(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52 신동아쇼핑 2층 차세대사역본부)으로 후원저금통을 보내거나 1월 6일까지 계좌이체(하나은행 573-910017-99105 예금주: 온누리교회PASSION)를 하면 된다.

문의: 02-2271-2246

/ 홍하영 기자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1월 29일(토)은 명절 연휴로 휴강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오프라인 조별모임도 병행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집사기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신청은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0만원. 문의: 02-2182-9110

재정국 선임간사 모집 은행 및 회계 업무 경력자

온누리교회 재정국에서 선임간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신실하고, 은행 및 회계 업무에 능통한 금융기관 경력자(7년 이상)이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신앙간증문 포함)를 이메일(shine8902@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문의: 02-3215-3219

평택온누리교회 창립 16주년

지역사회와 이주민 선교, 젊은 리더 세운다!

평택온누리교회가 지난해 12월 26일(주일) 창립 16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평택온누리교회는 2005년 12월 25일 국내 여섯 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다. 평택온누리교회는 지난 2019년 10월 예배처소를 이전했다. 새로운 예배처소에서 차세대 사역과 선교 사역, 지역사회

섬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신동식 목사(평택온누리교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때문에 주중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저 인도해주셔서 교회의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주민 선교에 힘을 다하며, 젊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지고 계속 성장하는 평택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두란노서원 <QT지> 가정예배 코너 신설

두란노서원에서 발간하는 <QT지>(생명의 삶, sena,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랑 나랑)에 가정예배 코너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예배’가 신설된다.

두란노서원 <QT지>에 가정예배 코너를 신설한 이유는 가정예배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에서만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부모가 신앙교사 및 작은 목회자가 되어 자녀를 믿음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목표다. QT하면서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하는 성도, 자녀와 믿음의 언어로 소통하기 원하는 부모에게 추천한다.

문의: 02-2078-3200

1월 화요성령집회 ‘세상의 소금과 빛’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대학청년부 1월 화요성령집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을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1월 화요성령집회 ‘세상의 소금과 빛’에서는 1월 4일 김승수 목사, 1월 11일 최성민 목사, 1월 18일 김승수 목사, 1월 25일 김윤식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 예수님 나신 성탄의 날에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나의 피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생각에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 이다은
- 저번 피(血)로회복 이후로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추운 겨울과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박상호
-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임설희
-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나눔의 기적이 풍성해지는 2022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이승철
- 200회 헌혈을 할 수 있게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 백성근
- 계속 헌혈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받아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여하게 되어서 뿌듯하고 기쁩니다! / 김혜진
- 하나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하였습니다. 솔직히 올해 생명나눔운동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4번째 헌혈이기도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건강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서준
- 헌혈은 사랑입니다. / 김용찬
- 아기 예수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듯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높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 진윤호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기효영 성도(강남D공동체)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남편을 따라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다. 시작은 단순하게 남편의 종교가 궁금해서였다. 2년 동안 순예배를 드리면서 어렵פות 기독교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만 다닐까 생각하던 차에 그만 둘 때 두터라도 성경은 읽어보자 싶어 구약통독반에 들어갔다. 구약통독을 하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성경의 통찰에 매료되었고, 회사 생활에서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 구약통독을 마치고 세상의 이치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다. 아침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면서 신(神)이 살아있다는 것을 뜨겁게 느꼈다.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시작했다. 세례를 받기 위한 의무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교재를 받아보고 아직 읽지 않은 신약 부분을 주로 다루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신약통독을 마저 해야지 하고 신약통독을 함께 시작했다. 구약통독도 해봤겠다, 하나님의 진리 정도는 안다는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웬걸,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하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지를 물으시는데 정말 곤혹스러웠다. 양육자님은 곤혹스러워하는 나에게 3주 동안 끈질기게 물으셨다. 괴로운 나머지 순예배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나는 양육자님이 해주시는 설명이 머리로는 이해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이치로는 알겠는데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괴로움을 토로했다. 양육자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성경책을 펼쳐 요한복음과 창세기 구절들을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내 생각과 기준에 의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길이라고 알려주셨다. 그 순간 세상의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는 충격과 함께 구원의 확신에 대한 10가지 질문에 완전하게 “네!”를 외치게 되었다. 그런 나에게 양육자님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선언하며 아이처럼 손뼉 치며 축하해주시던 순간이 잊히지 않는다. 일대일제자양육 기간 동안 누구보다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과 교회, 양육자님께 감사드린다.

■ 세례 간증



/ 김나원 성도(서대문공동체)

내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

크리스마스가 되면 떠오르는 어릴 적 기억은 하나님이 계시는지는 모르겠고 교회는 선물 주는 곳 정도였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회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다. 시댁 식구 모두 교회를 다니는 믿는 집안이라 안심했던 결혼생활은 심한 갈등으로 끝났다. 양육권만 받는 조건으로 위자료도 받지 않고 10년 결혼생활을 마무리했다. 결혼생활은 시작부터 모든 순간 난관에 부딪혔다. 좌절하는 와중에 하나님을 믿는 시누이들에 대한 적대감이 교회와 교인들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두 아이가 다닌 학교는 미션스쿨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가정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차별과 폭언 등을 경험하게 했다. 자퇴하는 아픔까지 겪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에 대한 반감 때문에 배란다에서 보이는 십자가조차 불편했다.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다. 어느 날 우연히 본 책 <목적이 이끄는 삶>에 눈이 멈췄고, 마지막 장을 덮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는 모순된 목적으로 교회를 웃으로 삼는 사람들과 섞이기 싫어 망설일 때, 온누리교회는 일반 교회와 다르다는 동생 친구인 어느 목사

의 권유로 7월 초 서빙고온누리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날 예배에서 쏟아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찬양 ‘아버지 품으로’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듯 펄펄 울었다.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몇 달 동안 울보가 되었다. 싱글맘으로 두 아이와 산 지난 21년은 두려움이 전부였다. 3년 전 기동 같았던 친정엄마마저 분향으로 돌아가시면서 외로움에 허우적거렸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시길 줄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지난 세월이었음을 고백한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 기도를 드린다.

“구원이 빛이 되어 두려움에서 평온을 찾아 주신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나와 남을 나누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며 귀를 막고 눈을 감았던 저를 목이 터져라 부르셨지요? 이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겠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듯 하나님은 저의 거울이시고 초상화이십니다. 욕을 쏘았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 온누리통일학교 수료 간증



/ 김정연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내 이웃 탈북민을 사랑하자!

20대 초반에 탈북민을 처음 만났다.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그 언니는 한국에서 적응하려고 고등학교 과정을 학습하던 중이었다. 언니와 만나는 시간이 늘 어색했고,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 우리는 가까이 앉아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가 무척 멀었다.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내뱉은 나의 말이 결국 언니에게 상처를 주었다. 우리는 그 이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북한은 내게 설명할 수 없어서 도망친 문제 같았다.

할머니는 늘 북쪽에 두고 온 가족 이야기를 하셨다. 가족과 헤어진 아픔, 그리움, 원망, 미안함, 살아있어야 만날 수 있다는 소망, 통일에 대한 희망이 엮인 이야기들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 어렵פות 배우고, 통일을 위해 기도했다. 사랑하는 할머니의 고향이고, 할머니의 가족이기에 함께 잘 살고 싶은 막연한 소망을 품고 생각날 때 하는 형식적인 기도였다. 이런 내가 온누리통일학교를 통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았다. 북한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너무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

다. 크게 간절하지 않았던 통일이 내 일이 되었고,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다.

온누리통일학교 제1부 바이블 스터디 강의를 들으면서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았다. 스쳐 지나간 탈북민 언니가 살았었고, 사랑하는 할머니의 가족이 사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이웃’이 북한 사람들임을 깨달았다. 제2부 주제 특강을 들으면서 다시 탈북민들을 만나고 싶어졌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마음이 생겼다. 내 이웃 탈북민들을 돕고 싶어졌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만남이 어색하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이 일에 사용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온 지식과 재능을 사용하고자 한다. 나는 먼저 탈북학생 대안학교인 ‘하늘꿈중고등학교’ 봉사를 시작했다. 통일위원회 사역도 지원했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실 것을 기대한다. 온누리통일학교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 화성M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학업지원



/ 정예레미 선교사(화성M센터)

나그네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얼마 전 무슬림 가정의 중학생 다윗(가명)을 가르치면서 진학 가능한 고등학교를 알아보다가 다문화가족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관계자와 통화한 적이 있다.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지만 한국 국적의 다문화가정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였다. 몇 개 학교에 더 전화를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학교의 입장이 이해가 되었지만 참 실망스러웠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이주배경 청소년들도 한국의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이 어렵고, 학교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자퇴율이 높다.

초등학교 3~4학년엔 한국에 온 아이들은 사실 한국어를 배우느라 몇 년 동안 기초학업에 손을 놓다시피 한다. 한국에 온 지 1년 남짓 된 은혜(가명)는 한국말을 거의 모른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곱하기, 나누기는커녕 더하기, 빼기도 힘들어했다. 나는 수학 지도에도 최선을 다했다. 아이의 수학 실력이 몰라보게 발전했고 자신감도 충만해졌다. 아이의 부모님이 참 기뻐하셨다. 사랑이(가명)는 한국에 온 지 3~4년이 지나서 한국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지만 수학은 아니었다. 중학생이지만 나누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홀·짝수가 무엇인지, 분수, 분모,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다. 나는 이 아이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C국에서 내 딸도 현지인 학교를 다니면서 공포와 외로움, 혼란스러움을 자주 겪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사랑이의 학습력이 높고 있다.

이주배경 청소년 3명의 수학학습을 지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드렸다. 가르칠 수 있는 지식도 열정도 주께서 주셨고, 아이들과 학부모들 모두 하나 되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다. 좋은 결과물들이 오직 주의 은혜이다. 성경에서 “네가 나그네 된 것을 기억하고 네게 오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다. 나도, 내 자녀도 나그네로 살면서 눈물을 흘렸다. 정현종 시인의 ‘사람이 온다는 것은’이라는 시가 생각난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내게 온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독생자의 영광

‘이’만 가운데에 붙이면 비슷한 본질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자를 붙이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육체를 입지 않으시면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몸만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입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되었다’는 것은 취소할 수 없는 완료된 행동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잠시 몸만 입었다가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분은 성육신하신 몸으로 이 땅에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육신하신 몸이 부활하신 것이고, 그 몸이 승천하신 것이고, 그 몸이 다시 오실 것이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으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독생자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셔서 영원히 그 몸을 입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거하시기를 택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 산에서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장막에 대한 청사진을 주면서 레위기에서는 텐트에서, 장막에서 만나십니다. 내려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늘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출애굽기에서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레위기에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장막 가운데 거하시며 백성을 만나는 화막을 만드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임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손으로 만지고, 주목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친밀하게 교통을 나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

셋째,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독생자 안에서 은혜와 진리는 완전히 하나 되고, 완전히 충만합니다. 타락한 죄는 은혜와 진리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은혜와 진리가 공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는 은혜를 적용하고, 진리는 꺼내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에는 은혜를 꺼내지 않고, 진리만 들이댁니다. 세상의 다툼과 분열, 미움과 상처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타락한 세상에서는 분리됩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도 은혜파와 진리파가 싸웁니다. 은혜파는 “덮고 넘어가자”, 진리파는 “바르게 바로잡자”고 합니다. 양쪽 말을 들어 보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은혜파에 가면 진리가 없고, 진리파에 가면 은혜가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공존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독생자의 영광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참된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한 영광입니다. 은혜란 진리의 기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은혜가 될 때는 진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불의한 일을 진리이신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대가를 치르심으로 진리를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란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진리 앞에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 이들에게 진리를 대신 감당해주시는 독생자의 희생으로 진리를 값없이 여겨주셔야 합니다. 참된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진리를 행할 수 없는 이들이 진리를 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값없이 의롭게 된 자들이 성령을 따라 삶으로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진리 없이 은혜가 은혜 될 수 없고, 은혜 없이 진리가 진리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진리는 은혜를 추구하고, 참된 은혜는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줍니다. 은혜를 축소시키면 구원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진리를 축소시키면 구원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진리는 죄를 미워하고, 은혜는 죄인을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만납니다.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의 징벌을 담당하심으로 진리의 요구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예수님은 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선물보다 중요하고, 가장 고귀하고 값비쌉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물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그리고 영원히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교회의 사회적 책임



함정철 장로
(양재 농어촌선교팀)

합니다.”

지난 4월 17일 양재 농어촌선교팀 단체채팅방에 긴급 전문이 났다. 경북 영주 배점교회 목사님이 보내신 내용이었다. 교회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놀란 가슴에 다음날 영주로 달려갔다. 화재피해가 그만한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가 컸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아찔할만한 상황이었다. 본당 건물 뒷쪽 창고 옆에 있는 소각장의 불씨가 강한 바람에 창고에 옮겨붙었다. 화마(火魔)가 본당 후면 친교실 지붕 쪽으로 옮겨가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 다

“4월 16일 오후 4시 발화, 쓰레기 소각장 불씨가 창고에 붙어 교회 건물로 번짐... 사모 트라우마, 두려움, 심리적 불안 증상, 저도 심리적 공황상태, 교회 재정 악화로 어려움, 기도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미안

행히 3년 전 지붕 누수로 전체 지붕 보수공사를 했던 게 큰불로 번지지 않은 이유였다. 당시 지붕 공사를 양재 농어촌선교팀 재능기부팀의 지원으로 했는데 마침 지붕 소재가 불연재여서 강풍에도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다. 창고는 전소되고, 친교실 쪽 지붕과 내부 천정 쪽으로 화재피해가 발생했다. 본당에는 큰 피해가 없어 주일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그래도 지붕의 삼분의 일 정도는 손상된 상태였다. 추가 피해 우려도 있고, 주일예배를 위해서라도 빠른 복구가 필요했다. 긴급히 배점교회 보수공사비를 지원해서 빠르게 지붕을 복구했다. 그 덕분에 며칠 뒤 내린 큰 비 피해도 예방할 수 있었고, 주일예배도 어려움 없이 드릴 수 있었다. 배점교회 사모님은 뇌출혈 후유증이 있었다. 사모님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한숨 쉬고 순간순간 놀라서 큰소리를 지를 정도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던 사모님도 보수공사 이후 감사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보내실 정도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배점교회는 150여 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던 교회였다. 자모실, 교제실, 부엌, 차세대 시설,

본당 200석 이상의 규모를 갖추고 있지만, 지금은 70-80대 연세 많은 성도님 20명 안팎, 그마저도 대부분 할머니 성도들이다. 교회 유지도 어려운 상황에 재난이 발생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의성의 한 교회는 300여 석 본당이 있음에도 성도가 20여 명밖에 없어서 본당을 비워두고 부속건물(식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다시 본당에서 예배드릴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쓰러져 가는 움막 같은 곳도 있고, 축대와 담벽이 무너지고 있어도 제대로 보수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다. 화장실이 없는 교회도 있다. 이런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사례비조차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빚을 내서 교회를 유지한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마을 노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지키고자 교회를 지키고 있다. 금방이라도 시동이 꺼질 것만 같은 노후 차량으로 전도와 심방, 마을 봉사도 하고, 교통편이 없는 성도들을 예배 때마다 픽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사님과 사모님들은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병들고 다친 몸을 치료할 수 없고, 자녀들 교육비도 감당할 수 없어서 오직 기도만 주님만 바라본다. 농촌 인구, 특히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생긴 농어촌교회의 현실이다.

양재 농어촌선교팀은 대형교회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인 한계도 있고, 농어촌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는 헌신의 손길이 부족하다.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지체들이 감당하고 있지만, 이분들 또한 60-70대가 대부분이다. 양재 농어촌선교팀 활동에 역동적 한계가 있음을 숨길 수가 없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다. “교회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작은 교회들을 살피라”는 말씀 아닐까?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받은 은혜에 나누며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일꾼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02-3215-3434, 3436



2022년 1월 1-2일, 8-9일
선교헌금작정

열방에 소금과 빛으로



선교헌금 작정 방법

- 현장 작정 (2022년 1월 1-2일, 8-9일) :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작정서 작성
- 온라인 작정 (상시 작정 가능) :
선교헌금작정 QR코드
- 전화 작정 (상시 작정 가능) 02-3215-3616
※ QR코드와 전화를 통해 온라인으로 작정 가능합니다.

선교헌금작정



선교헌금 작정서 작성 방법

※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해 주세요.

- 자동이체 (CMS) :
 - 소속캠퍼스,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앞자리 작성
 - 처음 작성하시는 분은 <신규 작성란> 작성
 - 이미 작성하고 계신 분은 자동연장되며, 변경사항 있으신 분은 <변경 작성란> 작성
 - 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 표시
- 헌금봉투 방식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작정금액 작성
 - 헌금봉투 수령 캠퍼스 선택

☎ 선교헌금 문의 02) 3215-3616